20151102 겨레하나

* 대만에서의 에피소드: ‘왜 대만에 왔니?’

1. ‘臺灣’ / ‘타이완’ : ‘타자 인식’의 방법

우선 오늘의 주제로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다소 수줍은 느낌의 질문으로 표현된 ‘타이완을 아시나요?’라고 주어진 오늘의 강연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가? 얼핏 보기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타이완’이라는 어떤 대상이 선정되어 있고, 기존 지식의 한계를 ‘앎’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즉, ‘타자’와 ‘앎’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선정한 주최측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타이완을 아시나요?’라는 질문 자체는 모순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모순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유용한 것 같다. 그것이 왜 모순적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된다.

우선 ‘타이완’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름을 확인해보자. 한자 또는 중국어로 ‘臺灣’이라고 쓴다. 우리는 과거에 이를 ‘대만’이라고 읽었다. 물론 ‘대만’은 국호가 아니다. 우리가 ‘대만’이라고 불렀던 이 곳은 중국의 지방이었다. 국호로 불린 것은 ‘중화민국’ 또는 ‘자유중국’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대만’을 ‘타이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왜일까?

우선 타이완은 중국어 음성 또는 그것의 영문표기 ‘Taiwan’을 한국어로 옮겨 쓴 것, 즉 전사轉寫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역’을 거친 표기이다. 그에 비해 ‘대만’이라는 표현은 역사성을 갖는 臺灣이라는 한자가 지시하는 의미를 함축한 이름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 첫째, ‘대만’을 ‘타이완’으로 바꿔 부르면서 더이상 ‘한자’가 관계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둘째, ‘번역’에 한자를 배제함을 통해서 얻어낸 ‘음성화’는 ‘영어’(또는 20세기적 ‘보편’)와 매우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타자’의 것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지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번역’에서 이는 ‘고유명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도입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확산된 ‘한글전용’ 논란이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1]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타자’ 인식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경우 해방 이후 번역의 ‘원음주의’와 글쓰기에서 ‘한글전용’[2]의 확산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글전용’과 ‘원음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탈역사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인식 및 표현 방법으로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언어문화 생활에서 ‘번역되지 않은 번역’이 양산되고, 의사소통의 세대간, 계급·계층간 단절이 심화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고유성’이라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고유성’에의 강조 자체가 사실 우리가

[1] “1970년 당시, 한글전용을 반대하는 자는 반정부행위자로 규정되고 이를 정보기관에서 다루었다. 한글전용 반대집회를 준비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수가 교단에서 축출되고, 칠판에 한자를 썼다 해서 중고교교사가 파면을 당했다. 교육계는 하나의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지호, 「내 뜻대로 산다」, 『어문연구』 11(1), 1983.2, 13쪽.

[2]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글’은 ‘역사’, ‘말’은 ‘현실’에 대응된다. ‘한글전용’과 ‘원음주의’적 번역은 ‘글’을 ‘말’에 맞추는 ‘현실주의’의 언어문화적 실천이었는데, 이는 ‘역사’와의 단절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앎'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유성'은 사실 배타적 독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고유'하다는 것은 '타자'와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중의 삶의 노력과 그것이 반영된 역사의 진전에서 요구하는 지적인 인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타자'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타자의 고유성'('타이완'이라는 '고유명사')에 대한 승인은 사실 오히려 '타자'를 '고유한 것'에 가두는 인식이기 쉽다. 한편, '타자'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고유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변화의 도정에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유성'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나를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타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와 같이 유럽적 현대성의 원리라 할 수 있는 '고유성'의 인식방법에서는 역사를 인간의 참여 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대만'이라는 호칭이 '타이완'으로 변화해온 과정은 '식민주의적 현대성'이 형식적 탈식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의 주체성을 승인하는 타자인식, 자기인식, 세계인식의 방법을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그것을 '역사적 다원주의'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와 '타자'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고유성을 중심으로 정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중심으로 변화 속의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 안에서 나와 타자는 평등한 다원적 세계 구성의 주체가 되면서, 동시에 나와 타자가 서로 나눠가짐을 통해 동시에 다원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타자인식 또는 세계인식의 한계들을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2. "歷史"의 우위와 '동아시아'라는 참조점

노신은 스스로를 역사의 '중간물'이라고 보았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역사적 전환기에서 부닥친 모순적 상황을 응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중간물'은 우리가 20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데 원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20세기 역사 자체의 진전을 반영하여 20세기 역사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현재의 지식 체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주어진 식민주의적 지식, 분단과 냉전 체제하에서 주어진 냉전적 지식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는데 아주 커다란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찰의 원칙은 바로 앞서 제시한 '역사적 다원주의'에 내부적으로는 '역사적 중간물'을 결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권역'적 참조체계를 활용하는 지적인 입장이다. 역사적 중간물은 20세기 식민-냉전적 지식체계 자체를 성찰하기 위한 민간적이고 저항적이며 대안적인 지식 사상의 계보를 재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로 제시된다. '권역'적 참조체계는 이러한 사상 계보 자체의 현실적 물질화를 뒷받침하는 혁신된 지식 장역의 구축을 말한다. 앞서 말한 '고유성'의 인식틀에서 우리는 늘 보편과 특수라는 정태적 관계상으로 세계와 자신을 인식해왔는데, '권역'적 참조체계는 바로 이와 같은 이원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체계를 돌파하는 실험적 장역으로 제시되고, 이 장역을 통과함을 통해서 앞서 제시된 역사적 중간물들의 사상계보가 그에 걸맞는 이름과 언어를 다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3. 陳映真과 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만의 역사적 중간물로서의 진영진이라는 문학가이자 정치가의 사상이며, 대만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권역적 참조체계의 구축과정 속에서 대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체적으로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타이완’으로 ‘번역되지 않은 번역어’로 보편화되어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타자로서 번역되게 된다.

우리가 권역적 참조체계를 강조할 때, 대만과 남한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구조 범주들과 역사적 연관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민, 내전, 분단, 냉전 등이 그러하다. 물론 여기에서 ‘식민’은 일반적 의미의 식민과는 달리 아시아 권역 내부에서의 식민-피식민 관계(‘일본’이라는 특이성)를 포함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구조 범주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조선/남한은 그 나름의 역사적 다원성을 갖는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진영진의 작품, 특히 <충효공원>을 통해 좀더 풍부하게 대만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문학 문외한으로서 정교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학의 언어는 사회과학의 언어에 비해 복잡하고 풍부한 현실을 묘사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문학작품은 논리적으로 명료하지 않을지라도, 그 복잡성과 풍부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해석을 열어주고, 이는 우리의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진영진의 작품은 현실의 풍부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풍부성을 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역사 감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역사적 중간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된다.

진영진은 1937년생으로 이른바 ‘본성인’에 속한다. 즉, 식민 시기 대만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다. 1959년 대학시절에 첫 단편을 통해 등단하고, 이후 1968년 ‘민주대만연맹’ 사건으로 투옥되기 전까지 직업적 작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다. 초중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때 그는 작품을 통해서 기본적인 역사 인식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즉, 전통-식민-냉전을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이해해야 함을 작품의 바탕에 깔고 있다. 한편 그는 1968년 사건으로 투옥되어 대만 정치범 수용소인 녹도綠島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그보다 먼저 투옥된 선배 혁명가 및 조직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추상적으로 남아 있었던 역사의 계보들을 다시 역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1975년 특사로 석방되면서, 그는 일정한 사명감과 임무를 갖고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40여년 동안의 작품활동 기간 동안,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영어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잡지 발행인 및 정당대표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늘 ‘부업 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해 왔다.[3]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영진을 대만의 20세기 역사와 21세기 초엽인 현재를 이해하는 입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한편으로는 투철한 역사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부업 작가’로서 갖는 풍부성의 인식과 표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4. 《忠孝公園》

오늘 다룰 작품은 《충효공원》이라는 작품집에 수록된 〈충효공원〉이라는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현재 진영진 선생의 상황을 고려하면, 진영진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부업작가’로서 진영진은 사실 아주 많은 작품을 쓰지는 못했다. 40여년 동안 여섯 권 정도의

[3] 이는 중국의 신현실주의 작가 조정로曹征路 (1949~) 에게서 빌려온 표현이다. “현재 문예계는 소그룹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매우 심각한데, 문예계는 본래 명예와 이익의 장소이고, 빨리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작가는 되도록이면 부업적이고, 취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사고의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와 이익에서 비롯된 글 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실되게 생활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2013/11/8, 《심천상보深圳商報》의 인터뷰). 사실상 ‘전업작가’의 명예와 이익이 형성되는 논리는 앞서 언급된 유럽 중심적인 ‘고유성’의 논리, 즉 ‘저작권’의 논리와 일치한다.

작품을 썼고, 주로 단편 및 중편이고, 장편은 없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대만의 20세기 역사의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집필되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어 한국의 독자들이 《충효공원》의 의미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효공원》이라는 작품이 이미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만에 접근하는데 있어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작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생략한다. 이 작품을 통해서, 나아가 진영진의 다른 작품까지도 포함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만이 우리에게 주는 참조적 의의를 가설적으로 추출해보았다.

먼저 대만이 갖는 '이중분단'의 특수성을 통해, 식민과 분단의 중첩의 경험을 하지 않는 남한과 대비되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대만은 분단의 문제를 늘 식민의 문제과 동시에 사고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식민성의 극복의 문제는 분단의 극복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구체적 실천에서 '뿌리'로서의 '중국'을 통한 '결핍'의 극복으로 개괄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대만에게 '주체성'의 차원에서의 '수동성'의 문제를 던져주었다.

상대적으로 남한은 식민이 먼저 주어졌고, 차후에 분단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식민성 극복의 전망을 존재하지 않는 식민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핵심적 문제는 '내부'의 식민적 왜곡에 참여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왜곡을 자기성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다.

둘째, 대만은 '국공내전'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은 아니었다. 민간과 일상의 차원에서 내전은 다소 '외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 걸쳐 백색테러로 대만의 좌익이 궤멸된 데는, 한편으로는 국공내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모순을 대중적 차원에서 대만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차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1950년 전후 동아시아의 좌익 이념 안에서 이러한 대만의 피식민대중의 해방과 주체성의 문제에 대한 사상적 인식이 다소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점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 거의 전 국토가 내전의 현장이었고, 인민 내부의 상호 폭력이 매우 극단적이었다는 점에서, 대만과는 매우 다른 대중적 정서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인식이 절박하다 할 수 있는데, 이 과제를 내재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출발점은 아마도 극단적 폭력의 원인으로서의 역사적 단절과 주체성의 왜곡이라는 과제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외성인'이라는 독특한 이주민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국민당 권력층으로서의 외성인과 식민경제의 계승자로서의 본성인이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배계급이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동시에 기층 민중의 차원에서 국민당 외부의 다수 '외성인'이 다수의 '본성인'과 동일한 계급적 지위를 가짐을 통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복잡성과 독특한 동학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남한의 경우 내전과 분단을 거치면서,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권력 집단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일성은 대칭적 분단이라는 조건 하에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대만에 비해서 폭력적으로 표출되었던 물질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